

濟州島研究 제14집(1997), pp. 193~223

국제관광과 섬(島) : 변화와 아이덴티티

송재호¹⁾

요약

섬들은 거역할 수 없는 세계화 조류로 인하여 삶든 좋은 국제관광을 통해 세계경제 체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세계화는 사람이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이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관광이란 사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관광은 발전을 바라는 대다수의 섬에 야누스적 두 얼굴을 내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국제관광이 섬의 가치있는 것이라고는 모두 파괴해 버리는 제국주의적 착취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에 국제관광은 섬의 아이덴티티를 고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며, 사회개발을 위한 유력한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국제관광으로 인해 섬 사회의 고유성이 상실되어 버린다면 그 개발은 무의미하다. 국제관광이 섬 사회에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제관광을 매개로 섬 사회가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국제관광객과 지역주민)끼리 인격적 융합을 실현하고 섬사람들이 종전보다 좋은 여건과 환경 물질적·정신적 만족감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무엇보다 국제관광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과 '아이덴티티'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주섬이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진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축적

1) 제주발전 연구원

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관광으로부터 파생되는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는 아이덴티티 확립에 있다. 가설적이긴 하지만 아이덴티티가 확립된 섬 관광지는 국제관광을 통한 편의의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덴티티를 매개로 국제관광을 바라보는 종속적 시각과 상호의존적 시각은 화해되고 융화될 수 있을 것이다.

I.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국제관광객들은 섬은 아름답고 서비스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섬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섬은 지리적 격절성 때문에 오랜 동안 변방으로서 고통과 좌절을 인내해 왔다. 섬들은 대륙문명이 지배했던 '고립의 시대'에는 외부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킬 수 있었고 그런대로 자신들의 삶을 구가해 왔 - '격절', '고립'이라는 어휘선택 자체가 대륙문명적 사고일 것이다 -. 그러나 세계화와 해양화가 본격화됨으로써 섬들은 국제관광에 노출되게 되었고 관광을 수단으로 하는 근대화와 개발의 이름아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관광은 발전을 바라는 대다수의 섬에 야누스적 두 얼굴을 내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국제관광이 섬의 가치있는 것이라고는 모두 파괴해 버리는 제국주의적 착취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에 국제관광은 섬의 아이덴티티를 고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며, 사회개발을 위한 유력한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세계화의 가속화는 관광진흥의 동인으로서 세계섬에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단지 어떻게 섬의 아이덴티티를 보존하고 경제가 지배하는 국제환경의 주변적 위치에서 파생되는 위협과 약점을 극복하며 섬의 내일을 향한 비전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따름이다.

이상은 관광진흥을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섬의 진정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본 연구가 제기하는 문제이다. 어쩌면 이 글 전체가 '세계적 차원에서 섬들의 보편적 발전모형은 어떻게 정립될 수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지방적 의미에서의 제주섬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문제제기일지 모른다.

본 연구는 국제관광지 - 또는 잠재적 국제관광지 -로서의 세계 섬들이 국제관광을 축복받은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섬(locality)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국제관광현상의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짚어보고 그로부터 섬의 입장에서 정책적 시사를 얻을 수 없는지를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 이러한 연구목적에 충실하고자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관광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정책학 등의 시각을 서로 연계하는 통합사회과학적(multi-disciplinary) 접근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II. 국제관광의 야누스적 두 얼굴

최근까지의 국제관광영향 연구는 비교적 객관적 측정이 용이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특히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1970년대 이후 영향연구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 자원경쟁, 경제의 왜곡, 생활양식의 파괴라는 견지에서 국제관광의 비용문제를 지적, 비판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주목할만한 흐름이 있어 왔다.

이들 연구자들에 속하는 Bryden,²⁾ Jafari,³⁾ Smith,⁴⁾ Matthews,⁵⁾

2) J.A. Bryden, *Tourism and Development: A case study of commonwealth Caribbea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3) J. Jafari, "The Socio-Economic Costs of Tourism to Developing Countries"

de kadt,⁶⁾ Cohen,⁷⁾ Pizam⁸⁾ 등은 좀 더 경종을 올리는 국제관광의 어두운 면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중요 요소들은 전통문화의 변질, 기존 가치체계의 붕괴, 혼잡, 오염, 소음, 도박, 매춘, 범죄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선진국의 국제관광정책을 신식민주의적 착취(plantation tourism)의 변형⁹⁾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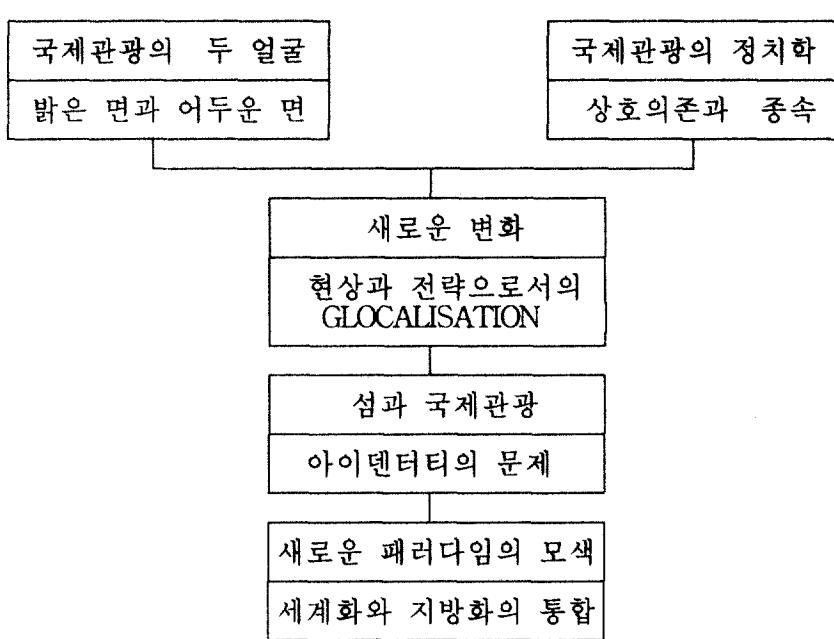
국제관광의 긍정적 영향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외화획득, 국제수지 개선, 그리고 주민의 소득·고용창출, 지역의 경제구조 개선, 기업 활동의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 효과는 1차적 직접효과와 2차적 간접효과 및 유발효과로 대별되는데¹⁰⁾ 이는 관광객의 소비지출로 발생되며, 그 편의의 정도는 승수기법과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선진지역과의 문화교류, 민속문화의 창조적 계승,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및 사회구조의 분화, 가족구조의 근대화, 지역주민의 세계관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보전 등을 지적

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 1974, pp. 227-259.

- 4) V.L. Smith, ed., *Hosts and Guests: Anthropology of Tour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7).
- 5) H. Matthews, "Radicals and Third World Tourism : A Caribbean Cas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4, Special No., 1977, pp. 20-29
- 6) E.de kadt, ed., *Tourism: Passport to Development?*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7) E. Cohen,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Physical Environ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5, No. 2, 1978, pp. 215-237.
- 8) A. Pizam, "Tourism's impacts: the social costs to the destination as perceived by its residen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16, No. 4, 1978, pp. 8-12.
- 9) Dennison Nash, "Tourism as a form of imperialism," V.L. Smith, ed., *op. cit.*, pp. 33-47
- 10) 김사현, 관광경제학 (서울 : 경영문화원 1988), pp. 274-309

<그림 1> 연구의 접근 틀(framework)



할 수 있다.

다음은 물리적 또는 환경적 측면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수용태세 정비를 통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 자연환경의 정비와 보전 등 국제 관광을 위한 환경정비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랑독-루시옹 (Languedoc-Roussillon) 해안관광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開發이 항상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첫째, 한 지역에서의 正의 승수 효과는 다른 지역에서의 易(-)의 승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개발

11) J.J. Pigram,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7, No. 4, 1980, p. 562

이익이 지역경제로부터 누출되기 때문에 실제 관광승수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¹²⁾ 둘째, 관광투자의 기회비용문제¹³⁾로 관광투자본을 지역의 타산업에 투입했을 때 생기는 편익의 정도를 관광개발이익과 비교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가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이는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관광지 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이다.¹⁴⁾ 넷째,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오물처리비용, 관광시설의 유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¹⁵⁾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고용에 관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고용창출이 대부분 저임금노동이라는 점,¹⁶⁾ 여성의 고용증가가 전통적인 가족질서를 붕괴시킨다는 점¹⁷⁾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우선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비대칭성¹⁸⁾으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가지 심리적 갈등¹⁹⁾과 고유문화의 상품화²⁰⁾ 현상을 꼽을수 있다. Tunisia 연구에서 Huit는 국제관광산업발전이 지역주민들의 불쾌감을 증가시켰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²¹⁾ 호화스러운 소비생활을 하는

12) M.J. Cooper and J.J. Pigram, "Tourism and the Austrian economy," *Tourism Management*, Vol. 5, No. 1, 1984, p. 5

13) D.E. Lundberg, *The Tourist Business* (N. Y. : Van Nostrand Reinhold, 1990), p. 233

14) E.de kadt, *op.cit.*, p. 143, 256 ; R.W. Butler, "The Social Implications of Tourist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 No. 2, 1974, p. 104

15) Mathieson and Wall, *op.cit.*, p. 87

16) Cleverdon and Edwards, *op.cit.*, p. 183

17) E.de kadt, *op.cit.*, p. 12

18) 전경수 편역, 관광과 문화 (서울 : 일신사 1994), pp. 9-19

19) E.de Kadt, *op.cit.*, pp. 111-134

20) Davydd Greenwood, "Culture by the pound: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n tourism as cultural commodification," V.L. Smith, ed., *op.cit.*, pp. 128-139

21) E.de kadt, *op.cit.*, p. 303

것 같은 국제관광객 행동이 태평양 섬 주민들에게 갈등과 소외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²²⁾ 지역주민들이 국제관광객에게 가지는 감정이 날이 갈수록 질투와 관광기피증(xenophobia)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²³⁾

특히 국제관광객의 높은 수준의 소비성향이 소개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의 생활양식을 모방하려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에 의한 모방심리가 입증되었고²⁴⁾ 이 모방심리는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또한 관광지의 지역주민문화가 어떤 형태로든 관광객에게 팔려나감으로써 성스러운 토착문화가 훼손되거나 세속화되는 문화의 상업화 내지 상품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은 독특한 심리적 자기비하와 자아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생활환경의 오염과 파괴 및 물리환경적 공해문제로 집약해 볼 수 있다. 관광개발은 지형과 지세, 토양이나 식생의 변화를 초래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변질시키며, 관광객에 의한 사적(史蹟)이나 자연환경의 훼손(vandalism) 등도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관광지의 쓰레기 등 폐기물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시설의 과부하 및 혼잡, 관광지역의 무질서한 팽창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²⁶⁾

이상의 내용을 정치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대분류하여 개괄, 재구성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2) B.H. Farrell, "Tourism's Human Confli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6, No. 2, 1979, p. 130

23) J.A. Pearce, "Host Community Acceptance of Foreign Touris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7, No. 2, 1980, p. 225

24) Chuck Y. Gee, J.L. Dexter and J.C. Makens, *The Travel Industry* (Westport: The AVI Publishing Co., 1984), p. 112

25) Bryden, *op.cit.*, p. 92

26) Mathieson and Wall, *op.cit.*, pp. 101-113, pp. 121-122 ; Gee, *op.cit.*, p. 120 ; Cohen, *op.cit.*, p. 220

국제관광의 초기단계에는 관광지 사회가 개발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그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국제관광은 관광지 사회와 조화롭게 양립한다. 지역주민은 국제관광을 만병통치약²⁷⁾으로 인식하고 관광개발로 있을 수 있는 장미빛 미래에 도취하게 된다.

국제관광이 점차 대중화되어 중앙정부와 외부의 대자본이 참여하고 관광수요가 관광지의 수용력을 초과하게 되면 국제관광으로 인한 문제가 지역수준을 벗어나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러 국제관광은 국가수준에서는 이익을 가져오지만 지역수준에서는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 환경과 불균형을 노정한다. 지역주민들은 무관심하거나 국제관광으로 초래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직면하여 곤혹스러움을 경험한다.

국제관광이 완전 제도화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관광정책결정에 관한 통제권은 외부자본가에게 넘어가고 지방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해간다. 점차 관광지는 과도한 이용과 혼잡으로 원래의 매력을 상실하여 그 유명도는 떨어져 간다.²⁸⁾ 이때에 비로소 지역주민은 자신들의 근거지가 외부투자가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을 깨닫고 국제관광객들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한다. 이른바 종속이론²⁹⁾에서 말하는 중심-주변부 갈등(the centre-periphery conflict)이 발생한다.

관광은 기본적으로 관광지 사회의 환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제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부정적 태도는 국제관광객을 감소시키고 관광지를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한다.³⁰⁾ 이에 따라 관광지 사회구조는 양극화되고 국제관광으로 편익을 수혜하는 계층과 희생을 치르는 계층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며 이 갭은 정치권

27) McIntosh and Goeldner, *op.cit.*, p. 305

28) C.P. Keller, "Stages of peripheral tourism development: Canada's Northwest Territories," *Tourism Management*, Vol. 8, No. 1, 1987, pp. 20-29

29) 이의 자세한 내용은 Raul Prebisch, 변형윤, 김대환 편역, 제3세계의 경제발전 (서울 : 카치 1980) 또는 G.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 Methuen 1963) 참조.

30) Pearce, *op.cit.*, p. 224

력의 질서에 도전하기도 한다.³¹⁾

국제관광으로 인해 섬 사회의 아이덴티티가 상실되어 버린다면 그 개발은 무의미하다. 국제관광이 섬 사회에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제관광을 매개로 섬 사회가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국제관광객과 지역주민)끼리 인격적 융합을 실현하고 섬사람들이 종전보다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물질적·정신적 만족감을 영위 할 수 있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 흔히 강조돼 왔던 국제관광의 긍정적 편익보다 그 부정적 비용의 최소화에 관심의 초점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제관광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Community approach)³²⁾과 ‘아이덴티티’ 측면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관광은 공동체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경제적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일찍이 라스웰이 지적한 것처럼 정치의 중심문제인 “Who Gets What, When, and How?”를 제기한다.

섬의 경우는 섬이 처한 지리적·역사적·사회경제적 특성상 국제관광의 상반된 두가지 측면이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즉, 국가와 국가 와의 관계에 더하여 섬과 육지부 중앙과의 관계가 한 번 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섬의 역사성과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대안 탐색은 한층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며 보다 신중한 관광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31) Brian S. Duffield and Jonathan Long, "Tourism in the Highlands and Islands of Scot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8, No. 3, 1981, p. 418

32) P.E. Murphy, *Tourism: A Community Approach* (New York : Methuen, 1985)

<표 1> 국제관광의 야누적 두 얼굴

	정 치 적 측 면	사 회 경 제 적 측 면
밝 은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을 매개로한 사람과 정보의 이동은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을 밀접하게 연계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화의 증진에 이바지함 ○ 지역주의의 쇠퇴와 세계주의의 확대로 국내적 통합 및 국제적 통합의 증대 (국제관광 유동은 국가간 친선을 나타내는 외교적 바로미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을 사회, 문화를 파는 특수한 생산양식으로 간주하고 이 시장경제의 원활한 메카니즘 속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육구충족,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확대를 통한 발전을 견인해 낼 수 있음 ○ 이러한 세계적 교환관계 속에서 부의 균등한 분배가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짐 ○ 외부문화와 토착문화의 교류를 통해 양 문화의 내용이 풍부해지며, 이러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친선과 이해의 확대에 기여함
어 두 운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이 평화와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는 커녕 편견과 민족차별을 강화함으로써, 부유한 지역이 관광산업을 매개로 힘 없고 가난한 제3세계를 착취하는 신식민주의적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 ○ 관광은 미사여구로 장식되어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은 관광지 사회의 생존이 위협받고 정의가 부정되며 평화가 위협받고 인권이 유린되는 위기를 안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확대시 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거대 자본애의 예속을 초래하고 그 결과 관광목적지 개발은 본질적으로 위장적 발전에 불과하게 되며 공급측은 오히려 환경문제등 경제적 비용만을 불하게 됨 ○ 경제적 비대칭성에서 드러나듯 총체적 권력이 약한 관광지 사회는 'Superior Power'의 육구충족 대상으로서 마약, 매춘, 알콜, 도박 등 하수구적 역할만 하게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문화의 상품화로 인한 정신적 갈등(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심할 경우 전통적 삶의 가치가 송두리째 상실될 수 있음

<자료> 연구자 작성

III. 국제관광의 정치학 : 상호의존이나, 종속이나?

국제관광을 통해 세계시민은 질서가 무질서보다 나으며 국제적 협조가 갈등보다 낫다는 공감대를 얻게 된다. 질서와 평화라는 중요한 정치적 가치가 국제관광을 통해 발전되고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국제관광은 그 사회경제적 중요성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현상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현상의 공공정책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개인과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 세계적 이동이 갖는 정치적 영향은 무엇인가? 소수의 경제학자나 인류학자들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정치학에서는 아직 문제해결의 열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국제관광의 전세계적 확대잠재력과 강력한 사회문화침투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분야로서의 관광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경제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계획론자들에 의해 전유되어 왔다.

Bramham과 Henry³³⁾, Wilson³⁴⁾, Coalter³⁵⁾ 등은 여가의 정치적 측면을 연구하고 여가정책과 정치적 이념과의 상관관계를 究明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측면 보다는 정책적 측면이라든지, 국제관계라든지, 정치행동에 있어서의 관광의 역할 등에 주목하고 있다.³⁶⁾

Linda K. Richter는 관광을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관광의 정치학(tourism politics)이 지금까지 정치학 연구자들로부터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관광의 연구는 제정치분야의 논

33) P. Bramham and I. Henry, "Political Ideology and Leisure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Leisure Studies*, Vol. 4, No. 1, 1985, pp. 1-19

34) J. Wilson, *Politics and Leisure* (London : Allen and Unwin, 1988)

35) F. Coalter, "Analysing leisure policy," I. Henry, ed., *Management and Planning in the Leisure Industries* (London : Macmillan), pp. 149-178

36) A.J. Veal, *Research Methods for Leisure and Tourism* (Harlow : Longman, 1992), p. 18

의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³⁷⁾ 그 럴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정치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다가 1970년대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정치학을 관광연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치학과 관광과의 상관성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다국적 관광기업에 관한 Matthews의 연구³⁸⁾였으며, 그 후 지금까지 Linda K. Richter를 중심으로³⁹⁾ R. Stock,⁴⁰⁾ A. Lijphart,⁴¹⁾ J. Elliot,⁴²⁾ D.J. Snepenger와 J.D. Johnson⁴³⁾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Stock은 관광객 유동량이 군사원조 및 경제협력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고, Lijphart는 관광객유동과 역내통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국제관광은 외부의 주도하에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제적 국제 교화행위로서, 여기에는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정부,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세계기업 등이 관여한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국제질서의 본질을 기술, 설명 및 예측하고 또한 정책을 처방하는 기본입장의 차이에 따라 자유주의 시각(liberal perspective)과 급진주의의 시각(radical perspective)으로 대별될 수 있다.⁴⁴⁾

-
- 37) Linda K. Richter, *op.cit.*
- 38) H.G. Matthews, "International Tourism and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 No. 4, 1975, pp. 195-203
- 39) Linda K. Richter, "Political Issues in Tourism Policy," *World Travel and Tourism Review*, Vol. 1, 1991, pp. 189-193 外 다수.
- 40) R. Stock, "Political and Social Contributions of International Tourism to the Development of Isra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5, Special No., 1977, pp. 33-42
- 41) Aren Lijphart, "Tourist Traffic and Integration Potential,"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 2, No. 3, 1964, pp. 251-261
- 42) J. Elliot, "Politics, Power and Tourism in Thai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0, 1983, pp. 377-393
- 43) D.J. Snepenger and J.D. Johnson, "Political Self-Identification and Perceptions o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8, No. 3, 1991, pp. 511-515
- 43)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 (서울 : 법문사 1993), p. 53

자유주의 주창자들은 국제경제관계, 특히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혜택을 완벽할 정도로 평등하게 분배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참여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

관광은 확실히 상호의존의 세계에서 간파될 수 없고 마땅히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현대적인 현상이다. 관광을 매개로 상호의 존된 세계는 관광증가에 힘입어 세계인간의 접촉은 빈번해질 것이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갈 것이다. 널리 여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세계주의는 확산될 것이고 지역주의는 쇠퇴할 것이다. 관광이 암흑에 비추는 빛 때문에 '어두운 대륙'은 없어질 것이다. 바야흐로 국제적 이해와 친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자유주의 상호의존론자들은 국제관광은 국가와 집단 및 개인간의 상호의존을 깊게 하고 크게 하는데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이들은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관광이 가져오는 편익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관광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 보다는 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호의존모델들을 집대성한 키오핸과 나이는 "상호의존이란 간단히 정의하여 세계정치에 있어서 국가간 또는 다른 국가에 속하는 행위자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상호적 의존관계로, 이와같은 상호적 영향은 국경을 넘는 사람·상품·금융·정보라는 국제적 교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자유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상호의존모델의 핵심적 내용과 저변에 흐르는 사상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의 위와 같은 사고의 밑바탕에는 전세계적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신념이 깔려있는 것이다. 즉, 많은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이 원하는 이상적 정치체제를 이룩하기에 앞서 우선 복지국가가 이룩해야 할 지역개발, 경제성장,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에 참여하지 않고 고립된 상태에서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경제목표들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호의존모델은 상호의존된 경제간의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세계자원의 최적활용을 통해 세계경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인류 전체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발의 동반자적 동기를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의 주요 견인차가 되어 시혜적 기업질서가 확립되는 세계를 상정하고 있다.

상호의존된 국제정치경제 질서하에서 세계의 중심부인 선진공업국들은 점차 서비스산업과 정보산업에 주력하게 되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생산활동중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은 생산조건이 유리한 주변의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국적기업을 매개로 개발이 촉진되고 세계경제가 한층 상호의존되면서 번영을 구가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셋째, 다분히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상호의존모델은 국제관계가 상호의존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갈등보다는 협조와 평화를 구축하는데 공통의 이해를 갖게 되므로, 국제관계의 상호의존이 평화에의 유인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주의국가가 만들어내는 상호의존이 평화에 연결된다고 하는 사고는 몽테스키외 아래로 강하게 견지되어 온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류는 국가에게 처음으로 타국의 부와 번영이 자국에게도 좋다는 것을 가르쳤다. 교류야 말로 전쟁을 급속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교류는 전쟁과는 대립하는 개인의 이익을 강화하고 그것을 다각화 시킨 것이다. 세계평화의 기본적 보장으로서 국제교류의 광범하고도 급속한 확대는 인류의 기본적 성격·이념·제도의 끊임없는 진보에 대해서 영원한 보증이 된다.”⁴⁵⁾

반면에 급진주의 신봉자들은 국제관광이라는 세계경제의 교환과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종종 불평등하며 부국과 빈국 사이에 신식

45) J.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 Longman Group, 1909), Books 3, p. 592

민주의적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제 3세계의 국제관광산업에 있어서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대식 호텔, 항공망 등은 다국적기업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의 자본이 대부분 투자하고 원주민들은 고용효과가 낮은 일용직 내지는 잡직에 종사하거나 위장취업된다. 그러므로 관광산업이나 관광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외국자본이나 외국자본과 결탁한 주변국의 중심세력에 귀속되고 정작 혜택받아야 할 원주민(지역주민)은 관광편익을 점유하지 못하고 착취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투자나 전문지식 내지 기술제공의 형식으로 외부자본의 지배를 받는 주변부 국가의 관광산업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바로 종속이라는 어두운 터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주변부 국가가 관광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노력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의해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며, “국제적 수준의 관광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종속에 투자하는 것”⁴⁶⁾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관광이 평화와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는 커녕 편견과 차별을 강화함으로써, 부유한 중심부가 관광산업을 매개로 힘없고 가난한 제 3세계의 민중을 착취하는 신식민주의적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바란은 전후 중심부 자본주의의 명백한 성공은 중심국가들의 주변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저발전국가에의 자본주의 이식은 경제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후진성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국주의세력에 의해서 식민지에서 생성된 잉여가 착취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착취에 있어서는 다국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⁴⁷⁾

바란으로부터 지적 영향을 받은 프랑크는 발전과 저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산업화된 세계의 발전은 이에 상응하는 제

46) T. Hovik and H. Turid, "Centre-Periphery Tourism and Self-Relianc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32, No. 1, 1980, p. 70

47) P.A.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1957)

3세계의 저발전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남미 저발전의 원인은 경제적 종속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 종속현상은 서구 자본주의경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모든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하부구조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⁴⁸⁾

제 3세계의 관광현상을 종속이론적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대두된 것은 처음에는 정치경제적 동기에서라기 보다는 관광이 초래하는 사회문화적 비용에 대한 저개발국가들의 강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관광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직접 대면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남북문제가 가장 쉽게 노출되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대비는 기존 종속모델과의 이론적 교류를 쉽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급진주의의 관광에 대한 종속적 접근방법은 종속모델과 관광을 상호연결하여 제 3세계의 관광현상을 지배와 착취라는 종속이론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관광현상은 이제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츄⁴⁹⁾는 일찍이 카리브해 지역의 국제관광을 다국적 기업과 관광객의 이 지역에 대한 플랜테이션 경제의 한 현상으로 기술한 바 있으며, 터너와 애쉬⁵⁰⁾는 관광은 아름다운 것이라곤 모두 조직적으로 파괴해 버리는 장치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제 3세계 관광개발이나 관광산업을 신식민주의의 한 형태로 보는 내쉬⁵¹⁾와 보이스베인,⁵²⁾ 종속이론적 가설을 도입하여 관

47) A.G. Frank,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1967).

49) H.G. Matthews, "Radicals and Third World Tourism : A Caribbean Focu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5, Special No., 1977, pp. 20-29

50) L. Turner and J. Nash, *The Golden Hordes* (New York : St.Martin's Press, 1976), pp. 11-15

51) D. Nash, "Tourism as a Form of Imperialism," V.L. Smith, ed., *Hosts and Guests : The Anthropology of Tour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7), p. 54

광산업을 대상으로 중심 - 주변관계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브리던,⁵³⁾ 정부간 중심-주변 관계를 고찰하면서 이에 대해 관광이 갖는 상관성이 대칭적이나 비대칭적이나를 분석한 하이빅과 헬베르그,⁵⁴⁾ 관광을 매개로 제 3세계 국가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연이어 정치적·문화적 종속을 가져온다고 분석하는 에리스만,⁵⁵⁾ 그리고 제 3세계와 정치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관광의 위상을 개념화한 베일과 드라카키스-스미스⁵⁶⁾ 등이 급진주의적 종속학파로 분류된다.

IV. 새로운 변화 : 'Glocalisation'

새로운 천년의 시작, 21세기가 눈 앞에 다가왔다. 21세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에 혁신을 가할 것이다. 하나는 바야흐로 해양시대가 열린다는 변화이고 또 하나는 낮아진 국경이 가져올 인류생활양식의 변화이다.

이미 저명한 미래학자들은 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하나같이 예견하고 있고 앤빈 토플러⁵⁷⁾나 자크 아탈리⁵⁸⁾ 같은 이들은 21세기의

52) J. Boissevain, "The Impact of Tourism on a Dependent Is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6, No. 1, 1979, p. 17

53) S.G. Britton, "The Political Economy of Tourism in the Third World,"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9, No. 3, 1982.

54) Tord Hivik and Turid Helberg, "Centre-Periphery Tourism and Self-relianc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 32, No. 1, 1980, pp. 6 9-98

55) H. Michael Erisman, "Tourism and Cultural Dependency in the West In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0, 1983, pp. 337-361

56) J. Bale and D. Drakakis-Smith, *Tourism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New York : John Lea, 1988), pp. 10-16

57) A. Tofler, 이규행 역, *미래쇼크*(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3), pp. 84-103

58) J. Attali, 유재천 역, *21세기의 승자*(서울 : 다섯수레 1993), pp. 111-140

지구인들은 사막에서 풀을 찾아 이리저리 유랑하는 유목민처럼 국경을 뛰어넘어 자유로이 이동하는 '신유목민(New nomad)'이라 명명하고 이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산업 등 유목산업이 전례없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1994년 전세계 관광수입은 약 3조4천억달러로 세계총생산(WGDP)의 10.1%인 셈이고, 이 액수는 세계군사비의 4배가량에 해당, 관광은 세계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산업으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관광산업은 총 서비스 통상의 약 1/3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총 서비스부문 수입의 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대륙문명시대의 섬들은 역사의 변두리에 밀려나 있었다. 섬은 대륙의 끝이었고 해양에 의해 문명의 중심으로부터 격렬된 고립의 생활터전이었기 때문이었다. 변방에 머물렀던 섬들은 자연히 문명중심지와 접촉이 어려워 '낙후된 오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앞선 문물을 접할 수 없었던 이들 섬지역에서는 역사의 시계가 멈추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옛날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지키면서 '잊혀진 지역'으로 머물렀었다.⁵⁹⁾

그러나 해양문명시대가 되면서 섬들은 먼거리에서도 이웃처럼 접촉할 수 있는 문명교류의 중심부로 나서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문명발전의 중심부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18세기 이후 현대로 오면서 문명의 중심이 섬으로 옮아가고 있다.⁶⁰⁾ 섬 국가로서는 영국과

59) 한편 대륙문명적 시각과는 달리 섬의 시각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경향이 역사상 새로운 추세만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섬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세계화 되어 있었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유연한 적응을 몸에 익히고 있었다. 해양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섬사람들은 海人의 특성상 대륙이나 반도부 농경문화의 정착적 생활양식과는 달리 넓은 범위의 해양을 이동하며 교역과 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인한 이문화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프런티어와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섬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글로벌라이제이션 - 현상적이든, 관념적이든 - 을 일상의 삶으로 부터 체득해 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60) 이상우, "해양시대 섬들간의 협력," 섬관광정책포럼 초청강연, 1997. 7.

일본이, 섬 지역으로서는 홍콩과 싱가폴이 그 좋은 예이다.

과거 변방으로서 섬들의 낙후성은 오히려 새로운 해양시대에는 값비싼 자산이 될 수 있다.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새로운 문명창출의 가능성 을 크게 하기 때문이다. 또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고유한 아이덴티티의 보존이 최고의 자산인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섬의 관점에서는 해양화로 대체될 수 있는 세계화(globalisation) 경향은 영토적인 분절화에 기초하고 있는 근대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세계를 하나의 단위체로 만들어가는 현상으로, 영역의 확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심화도 의미한다.

- 세계화가 핵심하는 의미는 단적으로 말해 미래사회는 지구적으로 경제 문화를 중심으로 폭넓은 사회활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연대시스템이 형성되는 사회라는 것이고, 이러한 이동의 자유로 말미암아 경쟁이 불가피해 진다는 사실이다.

경쟁의 측면에서 세계화는 지방화(localisation)와 분리할 수 없는 현상이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경쟁력이 제로섬적 약육강식을 의미하지 만은 않는다. 세계체제의 행위자 각자가 독특한(지방적) 개성을 발현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편익이나 파이를 더 크게 할 수 있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강화'가 의미하는 바는 '自'와 '他'의 협력을 전제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한 공동의 번영을 크게하기 위해 자기의 내부를 정비, 체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을 말하며, 타국이나 타지역과 협력이 가능한 위치로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연유로 남의 장점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최선으로 살리는 '共生의 원리'가 강조되고 지방화를 통한 '전략적 경쟁우위(strategic competitive advantage)'가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화의 경쟁우위 측면에서는 해양에 의한 대륙

과의 차단성 때문에 섬의 잠재력이 가장 크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관광의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관광은 교통, 산업, 문화, 환경 등 그 지역의 모든 부문과 직결되어 있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V. '섬'의 국제관광 : 변화와 아이덴티티의 문제

국제관광이 소개된 이후 섬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 그간의 고립과 변방에서 탈피하여 경제·사회 개발인자로서 국제관광을 인식하게 되고 국제관광을 통해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교환경제행위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사회로부터 멀리 원시적인 자연이나 고유한 문화를 찾아 휴양을 즐기고 신비감을 충족시키려는 서구인들, 이들의 동기를 사업 기회로 하는 다국적 관광기업,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는 국가권력이 섬의 관광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자연히 섬은 국제관광을 통해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며, 그보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논리에 의해, 중앙정부는 다시 보다 강한 Super Power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기 마련이고, 관광객의 외래문화와 섬의 토착문화간에 문화접碰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접碰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섬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점차 주민생활 자체가 관광대상이 됨으로써 아이덴티티는 위험수위에 놓이게 된다. 섬 사회는 국제관광지로서 점차 세속화되며 관광의 부정적 영향이 도처에서 나타나게 된다. 국제관광을 일종의 '축복'으로 생각해왔던 섬 사람들은 냉담한 태도를 나타내게 되고 국제관광객에 대해 적개심을 보이기도 한다.⁶¹⁾

61) C.P. Keller, "Stages of peripheral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Vol. 8, No. 1, 1987, pp. 23-24

아이덴티티는 주의를 요구하는 개념으로 사회라는 테두리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구속되는 어떤 척도이다. 이 척도는 갈등을 야기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개인이 공격을 받을 때, 약할 때, 한계적일 때 고양된다.⁶²⁾

섬의 입장에서는 국제관광객을 위한 계획·개발을 통하여 경제적·문화적 전략이 외부 관광산업의 목표와 결합하게 되고, 모르는 사이에 섬 사회는 외부세력에 의해 결정되며 관광객의 관점에 따라 재구조화된다. 섬 사람들은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환경의 모든 요소를 왜곡시키는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섬의 자존을 담보하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된다. 즉, 아이덴티티에 대한 도전은 변화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광용량이 섬의 일정한 사회적 수용력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화가 국제관광을 가속화하고 그 정도가 수용력을 초과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관광이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더라도 섬의 사회문화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섬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상실케 한다면, 이를 통해 섬 사람들의 사회가 관광객들의 사회가 되어버린다면, 이를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섬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아이덴티티 확립의 필요성은 관광상품화 과정에서 발견된다.

전통사회의 아이덴티티는 진실성(authenticity)을 찾는 국제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산업사회의 복잡한 일상을 탈출한 국제관광객들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없는 섬의 아이덴티티를 보고 느끼고 싶어한다. 섬의 아이덴티티 확립은 관광진흥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요인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이제 섬은 동시에 진전되면서 그러나 상반된 두 개의 과정을 상

62) 자세한 내용은 J.M. Benoist, *L'Identite: seminaire dirigé par Claude Lévi-Strauss* (Paris : Grasset 1977) 참조.

정해야 한다. 국제관광이 발전될수록 섬의 아이덴티티는 약화되는 데, 그러나 국제관광을 위해 섬의 아이덴티티를 보호·확립해야 하는 역설을 말한다.

앞의 것을 세계화라고 한다면 뒤의 것을 지방화라 할 수 있으며, 글로칼라이제이션은 이 역설의 조화로운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

발리의 경우 국제관광 없이는 섬의 경제가 죽고 국제관광을 진흥 하자니 섬의 사회문화가 파괴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다. 국제관광은 발리에 富를 가져왔지만 그 댓가는 아이덴티티의 상실과 전통 사회의 붕괴였다. 발리는 문화관광을 섬 발전의 주요전략으로 하되 문화를 한정된 시장영역에서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섬 고유의 문화와 국제관광객 문화를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국제관광객이 원하는 아이덴티티와 그것의 기초가 되는 진정한 발리의 아이덴티티, 즉 두가지의 아이덴티티를 분리하고 관광객을 위한 아이덴티티의 경우 진실성을 확보·조화시킴으로써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⁶³⁾

<표 2> 글로칼라이제이션, 변화와 아이덴티티

	현상적 맥락	정치적 맥락	공간적 맥락	결과적 맥락
CHANGE	GLOBALISATION	DIVERSITY	OUTSIDE	VISION
IDENTITY	LOCALISATION	UNITY	INSIDE	SURVIVAL

<자료> 연구자 작성

Andean Cordillera의 인디언의 예는 국제관광객의 진실성에 대한 탐구가 오히려 전통문화를 재구성하고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동기가

63) M. Picard, "Cultural Heritage and Tourist Capital : Cultural Tourism in Bali," *International Tourism*, Eds. M. Lanfant, J. Allcock and E. Bruner (London : SAGE Publications, 1995), pp. 44-66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객이 Andean Cordillera 인디언의 전통 의상을 선호함으로써 서서히 과거의 사실로 물혀가던 전통의상 織造기술이 살아났고 이것이 관광시장에서 잘 팔림으로써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으로 오히려 진정한 인디언 문화의 아이덴티티까지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⁶⁴⁾

섬의 국제관광, 변화와 아이덴티티의 조화로운 양립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 속성'과 'local 속성'의 연계)으로 해결점을 찾게된다. 아이덴티티는 국제관광과 관련하여 섬 수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제 섬의 국제관광은 경제, 사회문화 등에 있어서 아이덴티티를 매개함으로써 종속적 관점이 아닌 하나의 순환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섬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린 '세계화'를 종속과 파괴로 향하는 위협요인이 아니라 상호의존과 발전으로 향하는 기회요인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섬의 모든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셈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국제관광과 함께 변화하는 아이덴티티와 그 방향성에만 모아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동기부여되는 소망스러운 방향의 아이덴티티를 조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정치·정책적 측면에도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VI. 논의를 맺으며

이글은 엄격히 말하면 관광에 대한 연구는 아닐지 모르며, 그 자체가 정치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덴티티라는 섬속의 보물을

64) A.A. de Vidas, "Textiles, Memory and the Souvenir Industry in the Andes," *International Tourism*, Eds. M. Lanfant, J. Allcock and E. Bruner (London: SAGE Publications, 1995), pp. 67-83

캐어내지 못하고는 '교류를 통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관광의 이념에 충실할 수 없다는 가치판단은 전제되어야 한다.

관광은 '신유목민'이라는 표현처럼 매우 현대적 현상으로서 인간 생활을 풍부하게 해주는 바람직한 사회현상이다. 거대조직과 산업사회가 주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탈출하는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주는 한편, 목적지 사회는 그를 매개로 물량적·정신적 발전을 향유할 수 있다.

관광연구는 규범적이든 실증적이든 관광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현상을 한차원 높은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데 귀착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관광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다분히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견지에서 현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 관광연구자는 인식의 지평을 넓고 깊게 확대하여 종합학문적 관점에서 관광현상을 관찰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특수한 현실구조와 보편적 이론 사이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상대'의 현실까지 고려하는 '열린 사회'에의 지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제 섬들은 거역할 수 없는 세계화 조류로 인하여 쉽든 좋든 이미 국제관광을 통해 세계경제체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세계화는 사람이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이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관광이란 사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문제는 국제관광을 어떻게 하면 인간-환경지향으로 개발하고 진흥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은 섬을 찾는 관광객과 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말하며, 환경은 섬의 자연, 문화 환경을 의미한다.

세계관광의 추세는 '책임을 통한 수익성 확보(Profitability through responsibility)'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가치에 근거한 관광(Value-based tourism)'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가치는 바로 관광지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

국제관광객들은 무엇보다 섬의 고유한 진실을 보고 체험하고 싶

어한다. 그러나 국제관광지로서 섬의 토착문화가 외래관광객 문화와 자주 접碰하게 되면 아이덴티티가 점차 상실되게 된다. 지방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아이덴티티가 확립된 섬 관광지는 국제관광을 통한 세계경제체제의 순환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시 말해 아이덴티티를 매개로 국제관광을 바라보는 종속적 시각과 상호의존적 시각은 화해되고 융화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견해라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논의를 맺으며 연구자는 섬의 국제관광을 인간(관광객과 섬사람)을 위한 하나의 순환과정으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제문제를 문화관광을 통한 두가지의 아이덴티티(two kinds of identities, for international tourists and island people) 확립을 통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위한 섬 자신의 관광에 대한 통제권 확보, 경제적 아이덴티티를 위한 주민주체개발의 확립, 사회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위한 섬의 역사·문화 찾기와 섬 정신의 정립, 환경적 아이덴티티를 위한 자연그대로의 원형보전을 제안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섬 사회가 세계화와 국제관광의 능동적 행위자로서 올바른 위상을 확보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며,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유사한 지리적·역사적·환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섬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문제해결과 번영을 향한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세계화 추세는 하기에 따라서는 상호의존과 협력에 의한 win/win 게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김사현

1988 「관광경제학」 서울 : 경영문화원

박경서

1993 「국제정치경제론」 서울 : 법문사

이상우

1997 “해양시대 섬들간의 협력,” 섬관광정책포럼 초청강연, 1997. 7.

전경수 편역

1994 「관광과 문화」 서울 : 일신사

A. Tofler, 이규행 역

1993 「미래쇼크」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J. Attali, 유재천 역

1993 「21세기의 승자」 서울 : 다섯수레

Raul Prebisch, 변형윤, 김대환 편역

1980 「제 3세계의 경제발전」 서울 : 까치

Bale, J. and D. Drakakis-Smith

1988 *Tourism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New York : John Lea)

Baran, P. A.

1957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Benoist, J. M.

1977 *L'Identite: seminaire dirigé par Claude Levi-Strauss* (Paris : Grasset)

Bryden, J. A.

1973 *Tourism and Development: A case study of commonwealth Caribbean*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nk, A. G.

- 1967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 Gee, Chuck Y., J. L. Dexter and J. C. Makens
1984 *The Travel Industry* (Westport : The AVI Publishing Co.)
kadt, Ede ed.
- 1979 *Tourism : Passport to Development?*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Lundberg, D. E.
1990 *The Tourist Business* (N. Y. : Van Nostrand Reinhold).
- Mill, J. S.
1909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 Longman Group), Books 3.
- Murphy, P. E.
1985 *Tourism : A Community Approach* (New York : Methuen).
- Myrdal, G.
1963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 Methuen).
- Smith, V.L. ed.
1977 *Hosts and Guests: Anthropology of Tourism*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Turner, L. and J. Nash
1976 *The Golden Hordes* (New York : St.Martin's Press).
- Veal, A. J.
1992 *Research Methods for Leisure and Tourism* (Harlow : Longman).
- Wilson, J.
1988 *Politics and Leisure* (London : Allen and Unwin).
- Boissevain, J.
1979 "The Impact of Tourism on a Dependent Is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6, No. 1.

- Bramham, P. and I. Henry
1985 "Political Ideology and Leisure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Leisure Studies*, Vol. 4, No. 1.
- Britton, S. G.
1982 "The Political Economy of Tourism in the Third World,"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9, No. 3.
- Butler, R.W.
1974 "The Social Implications of Tourist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 No. 2.
- Coalter, F.
"Analysing leisure policy," I. Henry, ed., *Management and Planning in the Leisure Industries* (London : Macmillan).
- Cohen, E.
1978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Physical Environ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5, No. 2.
- Cooper, M. J. and J. J. Pigram
1984 "Tourism and the Austrian economy," *Tourism Management*, Vol. 5, No. 1.
- de Vidas, A. A.
1995 "Textiles, Memory and the Souvenir Industry in the Andes," *International Tourism*, Eds. M. Lanfant, J. Alcock and E. Bruner(London : SAGE Publications).
- Duffield, Brian S. and Jonathan Long
1981 "Tourism in the Highlands and Islands of Scot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8, No. 3.
- Elliot, J.
1983 "Politics Power and Tourism in Thai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0.
- Erisman, H. Michael
1983 "Tourism and Cultural Dependency in the West Indies," *Anna*

- ls of Tourism Research, Vol. 10.
- Farrell, B. H.
- 1979 "Tourism's Human Confli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 ol. 6, No. 2.
- Greenwood, Davydd
- "Culture by the pound :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n tourism as cultural commodization," V.L. Smith, ed, op.cit.
- Hivik, Tord and Turid Helberg
- 1980 "Centre-Periphery Tourism and Self-relianc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 32, No. 1.
- Hovik, T. and H. Turid
- 1980 "Centre-Periphery Tourism and Self-Relianc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32, No. 1.
- Jafari, J.
- 1974 "The Socio-Economic Costs of Tourism to Developing Countr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
- Keller, C. P.
- 1987 "Stages of peripheral tourism development: Canada's Northwest Territories," Tourism Management, Vol. 8, No. 1.
- Lijphart, Aren
- 1964 "Tourist Traffic and Integration Potential,"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 2, No. 3.
- Mattews, H. G.
- 1977 "Radicals and Third World Tourism : A Caribbean Cas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4, Special No.
- Matthews, H. G.
- 1975 "International Tourism and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 No. 4.
- Nash, D.
- 1977 "Tourism as a Form of Imperialism," V.L. Smith, ed, Hosts a

- nd Guests : The Anthropology of Tourism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Pearce, J. A.
- 1980 "Host Community Acceptance of Foreign Touris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7, No. 2.
- Picard, M.
- 1995 "Cultural Heritage and Tourist Capital : Cultural Tourism in Bali," International Tourism, Eds. M. Lanfant, J. Allcock and E. Bruner (London : SAGE Publications).
- Pigram, J. J.
- 1980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7, No. 4.
- Pizam, A.
- 1978 "Tourism's impacts: the social costs to the destination as perceived by its residen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16, No. 4.
- Richter, Linda K.
- 1991 "Political Issues in Tourism Policy," World Travel and Tourism Review, Vol. 1.
- Snepenger, D. J. and J. D. Johnson
- 1991 "Political Self-Identification and Perceptions o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8, No. 3.
- Stock, R.
- 1977 "Political and Social Contributions of International Tourism to the Development of Isra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5, special No.
- International Tourism and Island : Change and Identity

International Tourism and Island : Change and Identity

Song, Jae-Ho
Cheju Development Institute

With the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islands can not help being exposed to the World Economic Transaction System by way of international tourism.

International tourism has two opposing aspects, one of which is the means of imperialism that the first rich world exploits the third poor world. The other is that international tourism is a vital force of peace and prospe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lternatives, though implicative, which enable the islands to develop at once physically and spiritu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local'.

To accomplish that goals, the political and social impacts of international tourism are considered, upon the basis of which the policy prescription that islands as the attractive tourist destinations must gain the maximization of tourism benefits and the minimization of tourism costs by.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① for the deployment of discussion, ② two opposing aspects of international tourism, ③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tourism-dependency or interdependency? ④ new change - 'Glocalization', ⑤ island tourism - the problem of identity, and ⑥ discussion @